

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3455.83		845.34
	(+31.23)		(+3.35)
	금리 (연·%)		환율 (원·달러)
	2.596		1403.30
	(+0.014)		(+0.40)

中 HBM 굴기에 K-반도체 ‘위기’

화웨이, 자체 HBM 탑재 예정
中, HBM 자급률 확대 목표
삼성·SK, 점유율 하락 우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고대역 폭메모리(HBM) 시장 진출을 서두르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삼분해 온 글로벌 시장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 기업이 자국산 HBM을 사용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 하락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대표 테크기업 화웨이가 내년에 인공 지능(AI)칩 ‘어센드 910C’ 생산량을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60만대로 늘리기로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센드 전 제품군의 다 이(칩 회로가 들어가는 기본 실리콘 부품) 생산량도 올해 100만개 대비 대폭 늘어 최대 160만개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 화웨이는 AI칩에 자체 개발 HBM제품을 탑재하겠다는 자립을 선언했다.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AI반도체 ‘어센드950PR’에 자체 개발 HBM 제품 ‘HiBL 1.0’을 탑재할 예정이다. 화웨이는 HiBL 1.0이 128GB(기가바이트) 용량에 최대 1.6TB·s의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5세대 HBM3E 12단의 대역폭이 1.2TB·s인 점을 감안하



李 대통령 ‘국군의 날 열병’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면 이를 웃도는 수치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또한 HBM을 포함한 D램 제조 분야로 사업 확장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해 12월 미국이 대중국 HBM 수출 통제를 확대한 이후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서둘러 키우는 움직임으로 풀이한다.

이에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HBM 시장 점유율은 출하량 기준 S

K하이닉스62%, 마이크론21%, 삼성전자 17%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자국 내 HBM 수요를 겨냥할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 HBM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 구매량이 줄어들 수 있어 국내 업체들의 공급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화웨이와 바이두 등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을 예상해 삼성전자의 HBM을 선제적으로 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쌓인 국내 기업의 HBM 물량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삼성전자 HBM 매출의 약 30%가 중국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정부 지원과 ‘원팀’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 기업들이 내놓을 HBM 제품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전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5 제약·바이오 포럼’ K바이오 패러다임의 변화 독자적 기술로 혁신 주도

차세대 바이오 혁신을 이끌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오는 10월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5 제약·바이오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세대 혁신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 가능성을 다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보유한 인벤티지랩과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각자의 독자적 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기지속형 약물전달 플랫폼의 임상적·산업적 가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주목을 받는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개발 ▲국정과제로의 동물대체시험법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연구자와 기업, 그리고 일반 청중에게 혁신 기술과 산업 전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 제 :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 시 : 2025년 10월22일(수) 오후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참가신청 : 2025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forum@metroseoul.co.kr



9월 수출 42개월來 최대 對美수출은 2개월째 감소

지난달 수출이 3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한 반면, 유럽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관세 부과 등 불리한 여건을 이겨낸 수출시장 다변화 성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659억5000만달러, 수입은 8.2% 증가한 56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95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월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실적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8년 9월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4일 늘어난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은 2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지만,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업일수에 따라 일 평균 수출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9월 일평균은 8월까지 평균(25억5000만달러)보다 2억 달러 높았고, 1~9월 기준에도 25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수출은 월 단위로 관리하는 만큼 조업일수 효과에 따른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15대 주력 품목 중 10개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와 가격 강세에 힘입어 166억1000만달러(22.0% ↑)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자 ‘빛 탕감’

정부 새도약기금 공식 출범
사행성·외국인 채권 등 제외
7년 이하 조정 방안도 마련

정부의 장기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개인연체자 및 개인사업자로, 연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단계적인 채무 감면을 제공한다. 차주간 형평성을 위해 7년 이하 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는

장기 채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소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채권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채무 조정이 진행된다. 사행성·유형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은 제외된다.

채권 매입은 약 1년에 걸쳐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추심은 채권 매입 즉시 중단된다. 채무조정 및 소각 여부는 차주

의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의 경우 1년 이내에 채권이 소각되며,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으나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0~80%의 원금 감면과 이자 면제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중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채권이 전액 소각된다. 단, 장기 채무 보유에도 중위소득이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총 채무액을 초과할 경우 추심이 재개

된다.

이미 금융회사나 새출발기금, 신복위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장기 연체자를 위한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7년 이상 연체가 발생했으나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진행중인 차주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과 비슷한 연 3~4% 수준으로 책정되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공급된다. 이는 3년간 한시 운영되는 상품으로 총 대출 한도는 5000억원이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가야… 전작권 회복해 방위태세 주도할 것”
▲김민석 총리, ‘천원의 아침밥’ 청주 식당 찾아 격려

/사진 뉴시스

▲與 “특검 검사 ‘원대복귀’ 요청은 형사처벌 대상… 집단행동 금지 위반”
▲APEC 정상회의, 의료지원 강화… 복지장관, 의료체계 현장 점검

▲장동혁 “김현치 국회 안 세운다면 의혹이 진실임을 인정하는 것”
▲송언석 “법사위 대법원 현장검증은 위법… 국민의힘은 동행 안 할 것”